



심덕섭 고창군수, 무공수훈자회 명예회원 위촉

심덕섭 고창군수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명예회원으로 위촉됐다.

지난 9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정규 회장과 이현우 사무총장, 윤환 전북지부장, 성홍계 고창군지회장 등 무공수훈자회는 고창군청을 찾아 심덕섭 군수에게 명예회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무공수훈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고창군의 지속적인 노력과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고창군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강화를 위해 호국보훈수당 단계적 인상, 보훈가족 한미당 위안행사, 위탁요양병원 지정 추진, 보훈회관 신축(11월 준공 예정) 등 다양한 보훈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무공수훈자회의 명예회원으로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석 기자



무주장애인복지관,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사업 실시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종용)은 무주군의 지정기탁을 통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후원금을 지원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한 '경제적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군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북사랑의열매에 지정기탁한 기금을 바탕으로, 무주군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80세대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관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함으로써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달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무주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5개소 완료지구센터(무풍면 십승지문화센터, 부남면 비단강문화센터, 설천면 눈꽃내문화회관, 안성면 어울림센터, 적상면 오색단풍이야기센터)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난 9일 오전 11시, 무주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무주농어촌종합지원센터 최일섭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의 협력을 넘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가족센터, '한 여름날의 추억' 증강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가 지난 8일 학부모지원사업 '한 여름날의 추억'을 증강했다. 학부모지원사업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미취학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마다 총 4회가 진행됐다.

무주군가족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 전체 품앗이 대상 교육과 협업하여 진행한 영유아 양육 환경 점검 부모교육을 비롯하여 자녀와 함께 하는 과일 모듬 만들기, 텃밭물놀이 체험, 등 소통 능력 및 정서적 유대감 강화와 부모 자녀의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회 마련으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삼계탕 사랑 나눔... 지역사회 훈훈한 감동 물결

서신동 새마을부녀회, 정성 가득한 삼계탕 봉사활동

연일 이어지는 불볕 무더위 속에서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삼계탕 한 그릇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여름을 든든하게 채웠다.

전주시 서신동(동장 김은성) 새마을부녀회(회장 장은숙)가 주관하고, 서신신협(이사장 한병훈), 전광라이온스클럽(회장 신보용), 효자장제타운(대표 유명석)이 함께 힘을 보탠 이번 삼계탕 봉사활동은 폭염 속에서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10일, 부녀회원 1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한약재를 곁들인 삼계탕 80인분을 정성껏 끓였다. 고소한 닭육수에 다양한 한약재를 듬뿍 넣은 건강 삼계탕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끓는 솥 앞에서 식은땀을 흘린 이들의 정성과 사랑이 더해져 특별한 보양식이 됐다.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동사무소 회의실에 마련된 장소에 모셔서 대접했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게는 서신신협 한병훈 이사장과 서신신협 직원들이 준비된 삼계탕 30인분을 손수 차량에 싣고 직접 전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음식 전달과 함께 안부를 묻고 작은 말벗이 되어주는 따뜻한 손길은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

장은숙 서신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우리 이웃 어르신들께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삼계탕을 준비했다"며 "한 끼 식사가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신동 부녀회의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반찬 나눔과 김장, 떡국 봉사 등을 펼치고 있고, 매년 삼계탕 봉사 등 각종 봉사활동으로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사랑의 정을 나누고 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서신신협 한병훈 이사장은 삼계탕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생닭과 부속재료 비용을 후원했



으며, 지난해 여름에도 삼계탕 봉사에 물적지원과 인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전광라이온스클럽과 효자장제타운 유명석 대표는 매월 부녀회 활동을 꾸준히 후원하며 나눔의 동반자로 함께하여 김장봉사와 반찬봉사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김이재·장연국 도의원과 최명철 시의원도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부녀회원들을 격려했으며, 관내 시의원인 정성길 시의원은 시의회 운영위원회와 겹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서신동 주민센터 김은성 동장은 "서신동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작은 정성과 발걸음이 모여 큰 울림이 된 이날의 삼계탕 나눔은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이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단순한 봉사를 넘어 서신동 전체에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다. /이만호 기자



김승범 정읍시의원,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김승범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로부터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승범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구절초 지방정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계절 테마형 정원인 산림복지 문화공간으로의 변화를 제안하였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제안과 시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상 소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려는 의미의 상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숙원사업 해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노안동, 구세군 긴급지원 사업 추진

남원시 노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차미화)는 2025년 제1차 구세군 긴급지원 사업에 취약계층 5가구를 신청, 체리카드 2건과 식료품키트 6건을 확보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체리카드는 가구당 50만 원이 충전된 산발카드, 생계비,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식료품키트는 7만 원 상당의 식품과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대상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이백면, 경로당에 비상약품 전달·수거 관리

남원시 이백면 행정복지센터(면장 황도연)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상약품을 전달하고 수거를 통해 경로당 안전관리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이백면 관내 23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비상약품을 전달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들은 수거 후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비상약품을 전달하며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복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비상약품에는 해열제, 소화제, 진통제, 연고류 등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물품들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청소년상담센터, 도래상담 연합회 발대식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063-633-1977))는 지난 9일, 관내 포대 상담자와 상담교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래상담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포대 상담은 상담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은 청소년 포대 상담자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지지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활동으로, 올해는 노안초, 옥북중, 인월중, 제일고, 남원여고, 경마축산고 등 총 6개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모여 '포대상담 연합회'를 구성했다.

발대식에서는 포대상담 지도자 정일신 센터장이 연합회원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농협, 도농상생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9일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지부장 김대호)에서 의료지원이 절실한 농촌지역 아동에게 의료지원금을 전달했다. 전북지역은 12개 가정에 총 4800만원이 지원되며 완주지역 관내 5개 가정을 추천한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 소양농협(조합장 유해광), 용진농협(조합장 이종진)이 참석하여 상생기치의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이번 의료지원금은 NH도농상생운동본부(대표 장문찬)가 주관하고 서울 강남농협(조합장 이종호)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희망이음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전달되었다.

한 가정 당 400만원이 지원되며 증증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여러 어려움을 겪는 농촌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이음 의료지원 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서울 강남농협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억5,000만 원을 NH도농상생운동본부에 기탁해 오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누적 231명 환



아를 지원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농협조합장들은 한목소리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의료 인프라와 지원 부족 등 농촌 생활의 어려운 여건에도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부모님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김제가족센터, 인구의 날 맞아 하모니 합창단 감동의 무대 펼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9일 제6회 김제시 인구의 날을 맞아 김제시가족센터(센터장 장덕상) 주관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 퍼포먼스 및 합창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제시 가족센터 소속 '하모니 합창단'의 오프닝 축하공연으로 시작됐다. 하모니 합창단은 지역 주민과 이주배경 주민 등 35명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형 합창단으로,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이들이 노래를 통해 하나가 되어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날 합창단은 '에델바이스', '동요 메들리', '축배의 노래' 등 총 3곡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를 담은 따뜻한 하모니를 선사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김제시장과 하모니 합창단 단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홀로 아리랑'을 합창한 인구의 날 퍼포먼스였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김제'를 주제



로 펼쳐진 이번 무대는 김제시 인구정책의 방향과 공동체 회복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며, 시장과 시민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공감의 장면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제=락노태 기자

전북은행, 김제시에 '사랑의 삼계탕 나눔' 전달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0일 김제시청 부시장실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사랑의 삼계탕 나눔'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한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CRO 김선화 부행장, 리스크관리부, 여성관리부, 신용분석실, 데이터분석부 등 4개 본부에서 부실장, 김범식 김제시점장, 김제시 김희옥 부시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김선화 부행장을 비롯한 전북은행 지역사람봉사단원들은 다가오는 초복을 맞아 삼계탕 닭 600마리를 김제시에 기탁했으며, 김제시에 사는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관 3곳을 통해 삼계탕을 대접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김제=락노태 기자